

하나님의 의(義)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

오늘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는 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 : 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3 :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강조를 합니다.

다같이 다시 본문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로마서 3 : 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로마서 3 :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의 도덕적 성격이 하나님의 의입니다¹.

<거룩의 의미>

우리는 여기서 거룩의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성격을 대표합니다². 거룩은 모양이나 행동이 거룩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은 초월성을 가지고 계셔서 피조물이 미치지 못할 곳에 멀리 멀리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은 윤리성과 비윤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비윤리성은 무한, 영원과 같은 속성을 말하고, 거룩의 윤리성은 의와 선을 포함하는 도덕성³을 말합니다.

¹. 로마서 3 : 5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². 시편 99 : 3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³. 이사야 5 : 16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하므로 높임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의 도덕적 성격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의 도덕적 성격인 하나님의 의는 의로우며 선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를 완전히 멀리떠나 계실 뿐만 아니라 죄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는 거룩하고 완전하여 인간의 의로는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도덕적 성격과 함께, 또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당신이 원하는 자에게 의를 전가시켜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가시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유사이래 인간은 구원에 이르기 위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을 모색해 왔습니다.

I.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

사람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생기는 자각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각입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진 죄인이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이런 저런 죄를 많이 졌다. 그래서 나는 의인이 될 자격이 없다. 부끄럽다.’

그래서 사람은 의롭게 되기 위해 자신의 선행을 통해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워 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력 구원의 시도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인간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의롭게 되어 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모든 종교와 철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행위에 의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것,

인간의 노력과 공로를 통하여 의를 얻으려 하는 것을 자력 구원(Auto Soteric)이라고 합니다.

자력 구원의 시작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자력 구원의 근원적 기원은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난 후, 그 수치를 가리워 보고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벌거 벗은 죄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다고 하는데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시므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창세기 3: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부끄러움을 가리워 보기 위해, 자신을 꾸미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자신의 수치를 감추어 보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선행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워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고 싶은 것,
이것이 무화과 나뭇잎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무화과 나무로 엮은 치마는 금방 마르고 시듭니다. 새것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또 시듭니다. 영원히 이것을 반복해야 합니다.

영원성의 결여되어 있다!

인간이 만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자력 구원의 한계입니다.

종교와 철학의 한계입니다.

인간의 철학과 종교가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인간의 철학과 종교가 타락한 마음을 고치지 못합니다.

II. 선행으로 의롭게 되려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의를 얻으려 하는 것이다.

자기의 노력에 의한 선행에 의해 의롭게 되려 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잎으로 의를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행위에 의해 의를 얻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의 행위에 의해서는 왜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까?

갈라디아서 2:16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줄 아는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무엇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까?

율법은 선하고 신령한 것이지만 인간의 타락성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도덕적 경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도달 할 수 없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인간의 능력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데 한계가 있다!>

인간의 이런 종교와 철학의 한계를 그린 시지프의 신화(神話)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도 완전함에 도달치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신화입니다.

유한성으로 인해, 모자른 것이 꼭 하나가 있어서, 완전함에 도달치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의 神인 시지프는 큰 바위를 높은 산을 향하여 밀고 올라 갑니다. 가까스로 산꼭대기에 올라 거기에 그것을 고정시켜 놓려고 하면, 그 큰 바위는 밑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그러면 시지프는 밑바닥부터 다시 밀어 올립니다. 천신만고 끝에 산꼭대기에 거의 도달하여, 이젠 되었나 싶어 그 바위를 산꼭대기에 고정하여 놓려 하면 다시 밑바닥으로 굴러 떨어집니다. 이렇게 거의 다 올라갔다 싶으면 떨어지고, 거의 다 된 것 같아 고정하려 하면 다시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도저히 안정되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꼭 하나가 있어 완전치 못한 것!

이것이 바로. 자력 구원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산으로 얻어진 아무리 탁월한 철학적 체계, 종교적 체계라 할지라도 그것은 부족한 점이 하나 있어 그 위에 견고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가장 고상한 도덕적 경지에 이르렀다고 할지라도

인간의 타락한 죄성을 고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합니다.

자력 구원은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무화과 나뭇잎은 곧 다시 마른 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만들어 입는 것,

시지프가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

이 어리석은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자력 구원의 운명입니다.

III. 하나님이 제정하신 의의 길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의 무화과 잎으로 만든 치마를 벗겨 버리시고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 : 21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기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고 하는 것은 아담의 죄를 대신하여 다른 동물이 대신 죽음을 당한 것을 말합니다.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 다른 동물이 대신 죄의 형벌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죄를 전가받아 동물이 대신 죽는 것은 아담 이후로 시작하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된 속죄 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었다고 하는 것은, 죄없으신 예수님이 마치 동물처럼 우리의 죄를 전가 받아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 주신 것을 말합니다. 의의 두루마기를 입혀 준 것을 말합니다. 이 의의 가죽옷은 영원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 만든 치마와는 다릅니다.

시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도 입고 있습니다.

이 의의 가죽옷은 아담이 만들어 입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입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에 의해 의를 얻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의를 얻은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의 시작입니다. 타력 구원(Hetero Soteric)의 시작입니다.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되는 것은 창세기부터 선포된 복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2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율법과 선지자로부터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3:21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담대히 외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의 가죽옷,

이것은 영원히 시들지도 마르지도 않고, 다시 만들어 입을 필요도 없습니다. 완전합니다.

칭의는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 :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IV.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거룩의 도덕적 성격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거룩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도 **그 자신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 이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창세전부터 계셨습니다.

중보자인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2000 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람이신 예수님을 넘어,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이며 사람으로 계셨다고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제 2 위 성자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의 선재성이라고 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인격적으로는 성자지만 본체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그대로, 원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도달합니다.

빌립보서 3 : 9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인간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도달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이며 복음에만 계시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우리는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중보자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도달합니다.

<중보자의 사역>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사람인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하여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키어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며 인간이신 중보자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며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는, 사람이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인간이라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마서 3 : 22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은 사람이시며 하나님(God-Man)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뿌리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며 사람으로 믿지 않으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우리의 의의 전부입니다.

이 신인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아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이 바탕 위에서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로마서 3 : 28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Solafidianism (Lat. sola fide faith alone)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을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